

“오늘의 적도 내일의 적으로 생각하면 되고”

‘일제 청산’과 김수영의 저항

김철

1. “배일은 완벽이다”

1966년에 시인 김수영은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글을 썼다. 우선 그 글의 한 대목을 보자.

내가 참말로 꾀하고 있는 것은 침묵이다. 이 침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치르더라도 좋다. 그대의 박해를 감수하는 것도 물론 이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는 근시안이므로 나의 참뜻이 침묵임을 모른다. 그대는 기껏 내가 일본어로 쓰는 것을 비방할 것이다. 친일파라고, 저널리즘의 적이라고. 얼마 전에 小山いと子が 왔을 때도 한국의 잡지는 기피했다. 여당의 잡지는 야당과 학생테모의 기억이 두려워서, 야당은 야당의 대의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 이리하여

김철(金哲) 연세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국문과 석·박사과정을 마쳤다.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식민지시대의 한국문학을 통한 식민주의, 민족주의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국문학을 넘어서』, 『‘국민’이라는 노예』, 『식민지를 안고서』, 『복화술사들』, 『문학 속의 파시즘』(공저), 『해방전후사의 재인식』(공저) 등이 있다.

배일은 완벽이다. 군소리는 집어치우자. 내가 일본어를 쓰는 것은 그러한 교훈적 명분도 있기는 하다. 그대의 비방을 초래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기 때문만은 아니다. 어때, 그대의 기선을 제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대는 일본어는 못 쓸 것이다. 내 다음에 사용하는 셈이 되니까. 그러나 그대에게 다소의 기회를 남겨주기 위해 일부러 나는 서투른 일본어를 쓰는 정도로 그쳐두자. 하여튼 나는 해방 후 20년 만에 비로소 번역의 수고를 덜은 문장을 쓸 수 있었다. 독자여, 나의 휴식을 용서하라.¹

김수영은 자기 시의 창작 과정과 의도를 설명하는 ‘시작(詩作)노트’를 여러 편 남겼는데, 위의 인용문은 1966년 2월 한 문학잡지에 발표된 노트의 한 부분이다. 두 가지 점에서 이 글은 충격적이다. 첫째는 이 글 전체가 일본어로 쓰였다는 것. 해방 이후 한국에서 한국 작가가 한국의 잡지에 일본어로 글을 써서 기고한 것은 이 글이 유일한 사례일 것이다. 김수영은 한국의 전후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이며, 한국의 현대문학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작가 중의 한 명이다. 그런 작가가 의도적으로 일본어로 글을 써서 한국의 독자들을 향해 발표한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이 정작 잡지에 발표될 때에는 한국어로 번역되어 실렸다는 것이다. 작가가 일부러 일본어로 써서 보낸 원고를 잡지의 편집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한 것이다. 결국 일본어 원문은 사라졌고 김수영의 의도는 실현되지 않았다. 한국문학사상 전무후무한 (또는 전무후무한 것이 될 뻔했던) 이 사건의 ‘사건성’은 이렇게 ‘사산’(死産)되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이 ‘사산된 사건성’ 그 자체다.

나에게는 식민지와 해방 이후를 관통하는 한국사회의 어떤 뿌리 깊은 정신 구조, 혹은 현대 한국인의 어떤 정치적 무의식 같은 것이 이 ‘사산된 사건성’을 통해 그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점에

1 김수영, 『김수영 전집』 2, 민음사, 1981, 302쪽.

서 이 사건은 보다 깊이 음미될 필요가 있다. 1945년 8월 15일 이른바 ‘해방’의 순간 작동하기 시작한 새로운 민족 단일체로의 욕망과 집념이 도달한 어떤 지점을 이 사건은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욕망과 집착의 정체는 무엇이었던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던가.

의도적으로 일본어로 원고를 써서 잡지사에 보낸 김수영의 행동이 어째서 충격적인 ‘사건’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의 인용문에서의 “해방 후 20년 만에 비로소 번역의 수고를 덜은 문장을 쓸 수 있었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어로 쓰는 행위를 그는 ‘번역의 수고를 더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해방 후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문장의 전체적인 어조는, 김수영의 에세이가 대개 그렇듯이, 시니컬하면서도 자신감에 넘친다. ‘일본어로 썼다. 번역하지 않아도 되니 매우 편하다. 어디 비난할 테면 비난해 보아라’는 식이다. 단지 외국어로 썼다는 것만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외국어가 일본어였다는 것, 그리고 그 일본어가 김수영과 그의 독자들에게는 외국어가 아니었다는 것,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우선 다음과 같은 발언들에 주목해 보자.

- 1) 나는 국민학교에 들어가던 그날부터 제 나라의 모국어를 말하지도 쓰지도 못하는 언어의 囚人으로 자라나야 했다. 해방이 되고 난 뒤에 비로소 ‘가나다’를 배운 세대였다.²
- 2) 그 전까지는 국민학교에서도 이른바 ‘조선어’ 시간이 주당 2시간 정도는 배당되어 있었으나 1941년부터 전폐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한글을 처음 깨친 것은 해방 후의 일이다. 처음 천자문을 배우고 이어 일본말 교육을 학교에서 받았으니 나의 기초적 어문 교육은 중국 문자, 일본 가나, 한글의 순서

2 이어령, 『축소지향의 일본인』, 기린원, 1986, 서문.

로 진행된 셈이다.³

3) 1학년부터 우리는 모든 과목을 일어로 배웠다. 2학년 때 우리는 구구표를 일어로 암기했다. 셀 수 없이 여러 번 우리는 시시 주로꾸(4 곱하기 4는 16), 시치 시치 온주꾸(7곱하기 7은 49) 등등을 되풀이했다. 나는 곱하기가 근사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물건 값을 계산하는 데 편리하게 쓰여졌다. 나는 영어로 생각하고 꿈도 꾸지만 숫자 곱하기는 지금도 일어로 한다.⁴

4) 나는 자기의 약점을 검증하고, 그것을 보완할 방법을 연구해야 했다. 가장 큰 약점은 우리말의 서투름이었다. 일제하에서의 국민학교 4학년까지 ‘조선어’를 배웠을 뿐, 일본인이 대다수인 중학교에서 일본말로 공부하다 해방을 맞아 정확한 우리말을 익힐 기회가 별로 없었다. 군대생활 7년간은 영어와 우리말을 절반씩 사용하는 틀 속에서 ‘쓰는 한국어’를 연마할 기회가 없었다.⁵

1)과 2)는 한국의 전후문학을 대표하는 평론가들인 이어령(1934년생)과 유종호(1935년생)의 회고이다. 3)은 게이오대학을 졸업하고 1948년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대학 등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경제학 교수로 활동한 최기일(1922년생)의 회고이며, 4)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저항 운동을 이끌었던 언론인 이영희(1929년생)의 회고다. 1920~30년대에 태어나 식민지 하에서 자라고 교육받은 이들 세대는 ‘해방’이 될 때까지 일본어와 조선어의 이중 언어 상황 속에 살았다. 그러나 지식인으로서의 고급 지식과 교양은 거의 전부 일본어를 통해 습득했다.

일본제국이 한반도에서 물러갔을 때 10대 및 20대의 청년기에 이르렀

3 유종호, 『나의 해방 전후』, 민음사, 2004, 39쪽.

4 최기일, 『자존심을 지킨 한 조선인의 회상』, 생각의 나무, 2002, 195쪽.

5 이영희, 『歷程: 나의 청년시대』, 창작과비평사, 1988, 251쪽.

던 이들 세대에게 닥친 가장 큰 어려움은 다름 아닌 ‘한글로 읽고 쓰기’였다. 일본어를 ‘국어’로 익히고 교육받은 이들에게 새로운 ‘국어’로 등장한 ‘한국어’는 외국어나 다름 없었다. 특히 중일전쟁 이후 이른바 내선일체 시기 학교 교육에서 ‘국어(=일본어) 상용화’가 강제되고 “꿈도 일본말로 꺾어야 한다고 가르칠 때”⁶ 소학교를 다녔던 세대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일본어의 세계로부터 한국어 세계로의 급작스런 이동이 초래한 혼란과 정신적 트라우마에 관한 회고는 이 시기를 살았던 한국 지식인들의 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김수영에게도 이런 상황은 물론 예외가 아니다. 그는 1921년 서울에서 태어나 1968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생애의 절반을 ‘일본인’으로 살았다. 그는 일본어와 영어에 능통했던 반면 새로운 ‘국어’인 한국어에 서툴렀다. 1946년에 발표된 그의 처녀시 ‘묘정(廟庭)의 노래’는 그에게는 가장 낯설고 서투른 언어인 한국어로 쓰였다. 그는 오랫동안 이 처녀시를 부끄러워했다. 그는 1960년대까지도 일본어로 일기나 시를 쓰고 그것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에게 가장 낯설고 서투른 언어로 문학을 해야만 했던 김수영과 동세대 작가들의 이러한 운명의 복잡성은 탈식민지의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의식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복잡성이 잊혔다는 사실 그 자체가 현대 한국사회의 집단적 정신구조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2. “나는 더 이상 시치미를 떼지 않겠다”

1945년 ‘해방’ 직후 한반도에는 수많은 정치-사회 세력들이 등장했다.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의 과제를 향한 사회적 갈등은 1948년 남과 북에 각각 정

6 박완서, 『두부』, 창비(創批), 2002, 177쪽.

치적 이념을 극단적으로 달리 하는 정권이 수립될 때까지 치열하고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그런데 화해와 타협이 전혀 불가능할 정도로 격렬했던 이 시기의 이념적 혼란 속에서도 ‘일제 잔재의 청산’이라는 슬로건은 모든 정치-사회세력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사회적 목표였다. 이념이나 목표를 극단적으로 달리 하는 정치 조직이나 사회세력이라도 ‘일제 잔재의 청산’을 그들이 수행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는 데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었다. 요컨대 ‘일제 잔재의 청산’은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서 일종의 ‘정언명령’이었다.

그리고 그 정언명령을 실행하는 데에서 가장 우선적인 청산의 대상은 다름 아닌 일본어였다. 식민지 시대를 살아왔던 모든 한국인의 생활과 내면에 깊이 배어든 일본어를 씻어내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민족국가의 ‘국민’이 되는 필수 조건이었고, 일본어로 ‘오염’된 모국어를 ‘정화’하고 그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민족문화 건설의 선결 과제였다. 그리하여 194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일본어와 조선어의 위치는 정반대로 바뀌었다. 즉, 학교나 관공서, 기타 공공 영역을 지배하고 있던 일본어와 가정이나 개인 생활 같은 사적 영역으로 밀려나 있던 조선어라는, 한반도에서의 언어의 분할은 8월 15일을 기점으로 일본어와 조선어의 위치만을 바꾼 채 그대로 유지되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제국의 ‘국민’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강요되었던 일본어는 하루 빨리 씻어내야 할 ‘찌꺼기’가 되었고, 낡고 쓸모없는 폐기물에 지나지 않았던 조선어는 새로운 국가 건설의 초석이 되었다.

‘국어’의 습득을 통한 ‘국민화 프로세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식민지 시대와 해방 이후가 동일한 메커니즘을 지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 그것은 거대하고 장기적인 ‘기억의 재편성’을 수반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식민지 시대의 ‘국어 상용화’ 정책과는 또 다른 의미의 가혹함을 지닌 것이었다. ‘일제 잔재의 청산’이라는 ‘정언명령’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던 만큼, 자신의 신체에 깊숙이 새겨진 그 ‘잔재’를 ‘청산’한다는 것은 당사자들에게는 심각한 정신의 뒤틀림을 유발하는 또 하

나의 억압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국어’에 관한 한, ‘청산’의 대상은 바로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다. 이 억압의 무게를 가장 크게 받고 있던 세대가 김수영을 비롯한 1920~30년대생이었다.

김수영과 그의 세대의 불운은 그들이 받았던 이런 역사의 억압,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한 어떤 정신적 뒤틀림이 그들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전혀 인식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일본어를 비롯한 ‘일본적인 것’의 흔적과 기억을 깨끗이 지우고 말소하는 동시에 그 자리를 민족 순수성의 신화로 대체하는 작업은 해방 이후의 국가적 기획으로서 가차 없이 진행되었다. 자신의 기원에 새겨진 식민지적 혼종성과 굴절을 정면으로 직시하는 지적 용기는 이런 상황에서는 생겨날 수 없었다. 김수영이 예외적인 인물인 까닭, 그의 ‘시작 노트’가 특별한 ‘사건’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요컨대 김수영은 당대 한국사회의 가장 강력한 금기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해방 이후 남한 국가는 두 개의 강력한 금기에 의해 그 사회적 통합을 유지해 왔다. 하나는 ‘공산주의’, 또 하나는 ‘일본’이었다. 세계 최대의 반공국가 한국에서 ‘공산주의’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것은 접근해서는 안 되는 절대 금기의 영역이었다. 그 영역은 (명백히 ‘일체의 잔재’인)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 같은 법률로 명시화된 영역이었다. ‘공산주의’나 그와 관련된 기억 및 언설 가운데 허용되는 것은 ‘악랄하고 비인간적인 공산주의’를 증오하고 규탄할 때뿐이었다. 그러므로 역설적이지만, ‘반공주의’를 통해서만 ‘공산주의’는 한국에서 발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강력한 금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반공주의’는 한국의 정치-사회운동 등의 공적 영역에서 자주 도전 받거나 흔들렸다.

다른 또 하나의 금기, 즉 ‘일본’과 관련된 것들은 정치나 사법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었다. ‘일본’이나 그와 관련된 기억 및 언설 가운데 허용되는 것은 ‘악랄하고 비인간적인 일본 제국주의’를 증오하거나 규탄할 때뿐이었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배일’이나 ‘반일’을 통해서만 ‘일본’은 발화될 수 있었다. 그것은 법률로 명시화된 영역은 아니었다. 즉, ‘일본적인 것’을 기억

하거나 발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최초로 간행된 도남(陶南) 조윤제의 『국문학사』(1948)가 명료하게 보여주듯이,⁷ 식민지의 흔적을 민족적 동일성의 신화 안에서 깨끗이 삭제하고자 하는 집단적 욕망은 정치나 법률의 영역을 넘어 모든 사회적 영역에 그물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어떤 법률적 규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일’, ‘배일’은 ‘반공주의’를 훨씬 더 능가하는 위력을 지니고 있었다.

금기의 끄찍함은 지켜짐으로써가 아니라 위반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다. 증오와 규탄만이 허용되는 공적 영역에서와는 달리, 사적 영역에서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금기의 위반은 ‘반일’의 경우 특히 심했다. 김수영은 일기와 시를 일본어로 쓰고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그에게만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나의 부친과 모친 역시 식민지 시기 소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었는데, 나는 명절 때 우리 집에 모인 친척들이 일본 유행가를 부르며 즐기던 일, 그들이 일제 시대의 창씨 명으로 서로를 부르던 일, 부친과 모친이 가끔 아이들이 들으면 안 될 비밀 이야기를 나누거나 혹은 서로 다툼 때 일본어로 대화를 주고받던 일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집을 벗어난 공간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요컨대 자신의 신체 속에 육화된 식민지의 언어와 기억이 공적 공간에서 발화되지 않도록 ‘시치미를 떼고 살아야 했던 것’이 김수영과 그의 세대가 지켜야 할 금기의 내용이었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꿈도 일본말로 꾸라”는 명령 속에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꿈에서도 일본말을 하지 말라”는 명령 속에 사는 끄찍함을 견뎌내야 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 ‘시치미 떼기’를 20년 이상 지속하던 어느 날 김수영은 돌연 “나는 더 이상 시치미를 떼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 한국의 역사에서 전무후

7 조윤제의 『국문학사』가 ‘일본적 기원’을 어떻게 삭제하고 은폐했는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나의 다른 글 「결여로서의 국문학」(『사이/間/SAI』 장간호, 국제한국문화학회, 2006)을 참조할 것.

무한 선언이다. “그대는 기껏 내가 일본어로 쓰는 것을 비방할 것이다”라고 그는 말한다. 일본어로 썼다는 사실은 그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야당도 여당도 일치단결해서 ‘완벽’의 상태에 이른 ‘배일’, 그 위선과 허구, 그 ‘시치미 떼기’를 집어치우라고 말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신체에 새겨진 기원으로서의 일본어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김수영과 그의 세대에게 드리워진 금기의 끔찍함, 그 억압의 무게를 이해할 만한 상상력은 당시에나 지금에나 보기 어렵다. 잡지의 편집자는 그의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일본어로 된 원고를 한국어로 번역해 실었다. 그렇다고 무작정 편집자를 비난할 일은 아니다. 이 글이 일본어로 출판되었을 경우 야기될 사회적 소란과 물의를 잡지사 측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임을 생각하면 편집자의 조치는 충분히 이해될 법도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이야말로 ‘식민지의 기억’을 민족국가의 순수성이라는 신화 속에 봉인하고, ‘민족 주체’의 기원 속에 각인된 ‘오염’과 ‘혼종’의 흔적을 서둘러 지우고 분칠하는 탈식민지 사회의 집단적 자기기만을 한눈에 보여주는 사례다.

김수영의 경우가 얼마나 예외적인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여기서 같은 세대의 다른 두 문인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공교롭게도, 김수영의 이 글이 발표된 같은 해에 ‘식민지의 기억’과 관련된 중요한 저서인 문학평론가 임종국(1929년생)의 『친일문학론』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오랜 금기였던 ‘친일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협력했던 문인들의 이력과 활동을 폭로함으로써 큰 사회적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금기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이 책은 김수영의 글과 같은 맥락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방 이후 20년 이상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집단적 자기기만의 허위를 고발하면서 ‘식민지의 기억’을 공적 언설의 공간으로 끌어내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수영과 임종국은 모두 동일한 목표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은 김수영과 임종국의 도전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 임종국의 『친일문학론』은 ‘오염된 민족정기의 회복을 위해 친일파의 죄상

을 폭로하고 단죄한다’는 관점 위에 서 있는 것이었다. ‘친일파’의 ‘용납 못할 죄악’은 “그들이 섬긴 조국이 일본이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일 뿐, 그들이 “국가주의 문학이론을 주장했다는 사실” 자체는 “한국의 국민문학을 수립하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⁸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요컨대 임종국의 『친일문학론』은 한국사회의 오래 금기였던 ‘친일파’ 문제의 봉인을 떼는 한편으로 그것을 또 다시 민족의 순수성, 국가의 전체성이라는 이념으로 회수하는 것이었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금기에 도전하면서 금기를 더욱 강화시키는 작용을 했던 것이다. 김수영의 시도는 그것과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는 (임종국의 『친일문학론』도 포함해서) 바로 그 ‘완벽’의 상태에 이른 ‘배일(排日)’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다른 또 하나의 사례는 역시 한국의 전후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인 이호철(1932년생)의 경우다. 1977년의 한 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 세대로서 국민학교 교육을 받고 중학교 교육을 받고, 일본말을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그 사실부터가, 이미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순수한 한국인의 자격으로서는 결격이라는 사실의 냉정한 확인이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세대로서 그 당시 국민학교도 못 다니는 사람들보다 국민학교, 중학교를 다닌 편이 근본적으로는 이미 잘못 오염되어 있는 점이 있으리라는 것이다. 어느 끝까지 천착해 들어가면 틀림없이 그렇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그 무렵 국민학교도 없는 산간벽촌에서 초동(樵童)으로 농사꾼으로 뺨어간 사람들 편이, 일제의 식민지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온 우리들보다 순종 한국인이 아니겠느냐는 점이다. 일본말을 잘 알고 잘 한다는 일이, 결코 조금도 자랑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⁹ (강조는 인용자)

8 임종국의 『친일문학론』에 관한 설명은 나의 다른 글 「파시즘과 한국문학」(김철·신형기 외, 『문학 속의 파시즘』, 삼인, 2001)을 참조할 것.

9 이호철, 「우리 세대」, 『작가수첩』, 진문출판사, 1977, 11~12쪽.

이호철과 김수영의 차이는 명료하다. 이호철에게 일본어를 제1언어로 익혀야 했던 자기 세대의 운명은 ‘순종 한국인’으로서의 ‘결격’으로 규정된다. 그는 자기 자신이 ‘이미 오염되어 있는 존재’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이것을 이호철만의 특수한 사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기원에 새겨진 식민지적 혼종과 굴절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성찰하는 대신, 그것을 거대한 집단적 자기기만의 언설, 즉 민족적 순수성의 신화 속으로 해소하고 봉합하는 것은 이호철만의 경우라기보다는 해방 이후 한국사회를 지배한 가장 강력한 정체성 형성의 방식이었다고 해야 옳다. 거의 유일하게, 김수영만이 그러한 정체성 형성의 메커니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다.

3. 식민지의 ‘식민화’

1920~30년대 출생 세대에게 ‘해방’이 언어의 급작스런 교체로 인한 정신적 뒤틀림과 죄의식을 수반하는 것이었음에 반해, 해방 이후에 자라고 교육받은 세대에게는 사정이 전혀 달랐다. 독립국가의 국민으로 처음부터 한국어로 교육받은 이 새로운 세대는 ‘일제 잔재의 청산’이라는 구호 앞에서 어떤 자기모순이나 자기분열도 겪을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국어’에 대한 어떤 콤플렉스도 가질 이유가 없었고 식민지의 기억으로부터도 자유로웠다. 그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행운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한글세대’라는 명칭을 얻은 그들은 20대가 되었을 때 4·19 학생혁명의 주역이 되었다. 독재와 부패로 얼룩진 데다가 ‘친일분자’들로 이루어진 이승만 정권은 새로운 ‘민주국가’에서 사라난 이 신세대에 의해 붕괴되었다. 한국의 역사에서 이러한 승리와 영광을 체험한 세대는 오직 ‘한글세대’뿐이었다.

한국사에 대한 전면적인 새로운 인식이 시작된 것은 이 ‘한글세대’의 등장과 함께였다. ‘아시아적 정체성론’에 입각한 기존의 한국사 서술은 ‘식민사관’으로 규정되고 철저하게 부정되었다. 한국의 근대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 이전인 18세기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자생적 근대화론’, ‘자본주의 맹아론’ 등이 그 주요한 이론적 근거로 제출되었고, 그것은 한글세대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재생산되었다. 그들의 지적 에너지는 민족사의 정통성, 연속성, 순수성을 구축하려는 열망으로 불타올랐다. 예컨대 1973년에 출간되어 오랫동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김현·김윤식 공저의 『한국문학사』는 ‘일본에 의해 한국의 근대문학이 시작되었다는 ‘이식문학론’의 관점을 극복’하는 것이 새로운 한국문학사의 이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선언하고 있었다.¹⁰ 식민지의 기억을 최소화 혹은 부정하고 민족사의 연속성과 순수성을 재구축하고자 하는 이 욕구는 결국 ‘일제 잔재의 청산’이라는 기존의 사회적 과제를 보다 더 강도 높게, 김수영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과 다름 없었다.

그 결과 식민지의 관습과 언어로 ‘오염’된 김수영과 그의 세대의 문학, 즉 전후문학은 한글세대로부터 “우리 ‘겉’에 혹은 우리 ‘안’에 있는”¹¹ 문학은 아니라는 “사망선고”¹²를 받는다. 한글세대는 김수영과 그의 세대가 지닌 가장 큰 콤플렉스, 즉 완벽한 모국어 구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비판의 도구로 삼았고, 그것을 통해 1960~70년대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한글세대가 자기만의 고유한 권력이나 능력을 지녀서라기보다는 식민지의 기억을 민족적 순수성의 신화 가운데 봉인하고자 하는 탈식민지 사회의 욕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확장되고 고착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듯 김수영이 시도했던 ‘저항’은 간단히 잊혔다. 그리고 해방 이후 7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현재, 민족사의 연속성과 순수성의 신화는 한국사

10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김윤식(1936년생)은 연령과는 상관없이 학문적으로는 한글세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김현(1943년생)은 한글세대를 논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평론가이다.

11 김현, 「테러리즘의 문학」, 『문학과 지성』, 1971, 여름호.

12 한수영, 「전후세대의 문학과 언어적 정체성」, 『사상과 성찰: 한국근대문학의 언어/주체/이데올로기』, 소명출판, 2011, 240쪽.

회에서 신성불가침의 신앙이 되었다. 이 신앙 안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지배했던 20세기 전반의 역사는 민족적 순수성의 일시적인 ‘오염’, 민족사의 궤도로부터의 일시적인 ‘일탈’로 규정된다. 그 시기를 살았던 수많은 조선인들의 삶은 제국주의와의 ‘투쟁’의 정도에 따라 그 의미를 부여받는다. 독립된 국민국가의 건설이라는 최종적 목표를 향한 민족적 수난과 저항의 역사가 곧 한국 현대사의 핵심이라는 인식은 정치적 이념의 좌우를 불문하고 한국사학을 지배해 왔고 현재도 지배하고 있다. 식민지의 역사는 그러한 목적론적 민족사의 관점에서 보면 언제나 어떤 ‘결여’, ‘미완’, ‘왜곡’의 형상으로 재현될 수밖에 없다. 그 안에서의 삶 역시 온전한 주체로서의 삶일 수 없으며 민족해방투쟁의 제단 아래, 혹은 새로운 국민적 주체의 형성을 위해 ‘청산’되고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적 격변과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은 도전 받기는커녕 더욱더 강화되었다. 식민지의 체험을 지니지 않은 세대가 사회의 중심으로 진입하면 할수록 식민지의 기억은 한층 더 ‘타자화’되고 ‘식민화’되었다. 예컨대, ‘일제강점기’라는 용어가 그러하다. 이 용어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이면서 공식적인 용어로 정착했다. 일상대화나 출판물에서는 물론이고 언론매체, 교과서, 학술논문에도 이르기까지, 일제 식민지기를 ‘일제강점기’로 부르는 관행은 2000년대 이후 전사회적으로 보편화되어 지금은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뭔가 수상쩍은 눈초리마저 감수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 용어 속에 담긴 식민지 기억에 대한 ‘타자화’이다.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지배를 전쟁 혹은 전투상태의 역사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자면, 식민지는 한민족이 일본제국주의와 교전(交戰) 상태에 있는 시간, 즉 ‘해방투쟁’의 시간이며 영토와 주민이 적에 의해 점령당해 있는 시간이다. 전쟁에서의 점령기관 ‘일시적인 비정상’ 혹은 ‘주권의 일시적인 정지 상태’, 요컨대 정상적인 궤도로부터 잠시 이탈한 ‘일탈기’에 지나지 않는다. 점령 상태가 소멸되는 순간 모든 것은 원

래의 위치로 되돌아간다. 남은 일은 점령에 의한 피해를 복구하고 적에 의해 일시 단절되었던 주권 권력을 재가동하는 것이다. 점령의 기억은 일시적인 ‘일탈’로서 민족적 연속체의 장구한 역사 속에 매끄럽게 해소되고 봉합된다.

결국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교전 상태에서의 적에 의한 일시적인 점령으로 이해하는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는 식민지의 기억을 민족적 순수성, 연속성의 신화 속에 봉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식민지의 치욕과 굴종의 기억을 깨끗이 ‘청산’, 즉 ‘망각’하고자 하는 한국사회의 오랜 욕망을 반영하는 용어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식민지를 살았던 수천만 명의 삶을 특정한 목적에 맞추어 재단하는 ‘타자화’의 폭력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지닌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를 직시하고 싶지 않은 욕망, 과거의 진실과 마주하고 싶지 않은 초라한 욕망의 단적인 표현이다. 1945년 8월 15일, 이제는 더 이상 일본제국의 신민이 아니라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해 했을 수많은 조선인의 복잡한 내면을 헤아릴 만한 지혜나 상상력은 이 대문자로서의 역사 인식 속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다. ‘완벽에 이른 배일’의 허위의식을 비꼬고 조롱하는 김수영의 ‘저항’을 무참히 사산시킨 편집자의 욕망도 그 용어에 배어 있다. 식민지는 이렇게 ‘식민화’되었다.

해방 이후 정확히 50년이 지난 1995년 8월 15일, 서울 광화문에 있던 구(舊) 조선총독부 건물이 철거되었다. 반세기에 걸친 ‘일제 잔재의 청산’은 서울 한복판에 서 있던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고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조선왕조의 궁궐인 경복궁을 복원하는 것으로 그 절정에 달했다. 자신의 신체에 새겨진 식민지의 기억과 흔적을 민족적 연속성과 순수성의 신화를 통해 ‘청산’하고자 하는 오랜 집단적 욕망은 이 퍼포먼스에서 최대한으로 표현된 것처럼 보인다. 이 상징물의 재편성은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되어 오늘도 그 자리는 수많은 관광객들로 들끓는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현재는 옛 조선왕조의 화려한 궁궐들과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관광객의 눈앞에 현시된다. 식민지를 떠올릴 어떤 가시적인 단서도 거

기에는 없다. 과연 식민지는 ‘청산’된 것일까?

‘조선총독부’는 천안의 ‘독립기념관’에 가면 볼 수 있다. 철거된 조선총독부의 잔해는 ‘조선총독부 철거 부재(部材) 전시 공원’이라는 야외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다. 그곳의 안내문은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놀라운 표현들로 가득하다.

일제 식민통치의 상징인 조선총독부는 일제 잔재의 청산과 민족정기 회복 차원에서 광복 50주년인 1995년 8월 15일부터 철거가 단행되었다. 이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거 부재를 독립기념관으로 이전,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전시의 기본적인 개념은 역사교육의 자료로서 활용, 전시하되 홀대(忽待)하는 방식으로 배치하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침탑을 지하 5미터의 깊이에 매장하여 전시하는 형식으로 조성하였고, 독립기념관 주 건물의 서쪽(석양을 상징)에 위치시킴으로써 일제 식민지 시기의 진정한 극복과 청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강조-인용자).

이 전시 공원의 설계자는 전시의 기본적인 개념을 “전시하되 홀대하는 방식”이라는 기상천외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민족 기상의 장’이라는 제목의 또 다른 안내문은 이 전시장을 가리켜 “조선총독부의 철거 부재를 폐허의 공간에 전시하여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연출, 전시한 공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조선총독부 건물의 잔해를 ‘홀대하는 방식’으로, ‘지하 5미터에 매장하는 형식’으로, ‘석양을 상징하는 서쪽에’, ‘폐허의 공간’에 내던지듯 전시함으로써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자긍심’을 느낀다는, 대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어이없는 발상 앞에서 나는 ‘일제 잔재의 청산’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절망감, 식민지는 영원할 것이라는 공포를 느낀다.

사정이 이와 같은 한, ‘나의 참뜻은 침묵에 있지 일본어로 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던 김수영의 '참똥'은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20년 만에 번역의 수고를 덜 수 있었다. 나의 휴식을 용서하라'고 했던 그의 소망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의 잘 알려진 시 한 편은 살아생전 자기 시대와 끊임 없이 불화했던 시인의 피로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이 시를 인용하는 것으로 나 또한 나의 피로감을 위무 받고 싶다.

우리는 무슨 敵이든 敵을 갖고 있다
적에는 가벼운 敵도 무거운 敵도 없다
지금의 敵이 제일 무거운 것 같고 무서울 것 같지만
이 敵이 없으면 또 다른 敵—來日
來日の 적은 오늘의 敵보다 弱할지 몰라도
오늘의 적도 來日の 敵처럼 생각하면 되고
오늘의 적도 來日の 敵처럼 생각하면 되고

오늘의 敵으로 來日の 敵을 쫓으면 되고
내일의 敵으로 오늘의 敵을 쫓을 수도 있다
이래서 우리는 태평으로 지낸다

(「敵」, 1965)

*「일본비평」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외래어를 괄호 안에 병기하고 있으나, 이 글과 이 글에서 다루는 소재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여 일부 인용문에 한해 원문의 한자를 그대로 표기하였다.